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이철우 도지사, '대구경북행정통합' 도민 의견수렴 행보 시작 - 3월 10일 경산시를 시작으로 매주 시군 순회 현장 간담회 개최	정책기획관실	
② 이철우 도지사, 수출기업과 영상으로 만남 가져.. -수출기업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수출 400억 달러 달성 결의 다져 -경제진흥원,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 시책설명회 개최	외교통상과	
③ 경북도, '새바람 행복버스 경산시 현장 간담회' 개최 - '외식업, 휴게음식업 氣 확실히 살리자' 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 열어 - 이철우 도지사, 새바람 행복버스 타고 외식업, 휴게음식업 민생현장 방문	자치행정과	
④ 코로나19 걱정 덜어주는 경북안심식당 확대 추진 - 국비 3억 9천만원 확보 및 연말까지 4,602개소 지정계획	식품의약과	
⑤ 경북도영덕군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 총력 - 수전해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검사 기반 구축의 최적지 - 그린수소 생산, 연료전지 인증센터, 기업 기술지원 통한 수소생태계 구축	에너지산업과	
⑥ 기업애로 사항, 비대면으로 소통하며 해결해요 - 2021년 해피모니터 기업 영상회의 개최 - 지방투자보조금 등 지원시책 공유 및 기업 현장의 소리 공감	투자유치실	
⑦ 경북도, 지방자치단체 최초.. 국내 태교여행 홍보 - 2021 부산베이비페어에서 '아가랑 함께하는 첫 경북여행' 홍보	관광마케팅과	
⑧ 경북도,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공모선정.. 12억원 확보 -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공모 최종 선정	사회재난과	
⑨ 경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봄철 방역 강화대책 추진 - 봄철 이후 이동 및 번식으로 인한 개체수 증가 등 도내유입 위험 증가 - 양돈농가 방역시설 개선 및 야생멧돼지 개체수 저감으로 유입차단	동물방역과	
⑩ 경북도, 중소기업 유통채널 입점을 위해 직접 댈다 -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품평회를 연 4회 개최	중소벤처 기업과	
⑪ 해양과학기술 기반 기업 지원사업.. 첫걸음 내딛는다 - 해양과학분야 사업화를 위한 기술성숙도 단계별 관리시스템 구축 -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사업비 최고 35백만원, 총 15억원 지원	동해안정책과	

 경상북도	보도자료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기획관	이 경 곤		
	【21. 3. 10(수)】		작성 자	팀 장	허윤홍	담당자 전영구
			연 락 처	054-880-2138		

이철우 도지사, 대구경북행정통합 도민 의견수렴 행보 시작

- 3월 10일 경산시를 시작으로 매주 시군 순회 현장 간담회 개최 -

지난 3월 2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이 나오고 그동안 공론 훼손을 우려하여 시도지사에게 당부했던 행정통합 관련 목소리 자제요청을 풀면서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행정통합 알리기에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경북도는 “3월 10일부터 경산시를 시작으로 시군을 순회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현장 간담회를 매주 1회씩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이슈 등으로 다소 지체된 행정통합 공론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여론을 확인하고 주민투표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추진한다. 또한, 현장 간담회에서 도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들은 공론화위원회 전달하여 기본계획(최종안)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간담회는 10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이철우 도지사, 최영조 경산시장,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 조현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 홍정근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장, 박채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기관단체장 등 32명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이철우 도지사가 주재하는 시민들의 질의응답과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경북도 이경곤 정책기획관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배경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 △행정통합 기본구상 △부분별 발전 전략 △주요 쟁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진행을 맡아 행정통합 비전, 권역별 발전전략 뿐만 아니라 통합 정부 명칭 및 청사 입지, 시도 재정문제 등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참석자들과 활발한 토의를 펼쳤다.

특히, 대구 수성구와 바로 인접해 있고 무엇보다도 대구 지하철 2호선 연장 문제와 같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경산인 만큼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후 광역교통체계의 변화, 인구유입 및 경제 활성화 및 대구경북 상생 방안 등 경산지역의 발전상에 관한 질문과 의견이 이어졌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경산은 이미 생활권과 경제권이 대구와 일치하지만 행정구역이 늘 걸림돌이었다”고 말하고, “광역단체 행정구역의 벽이 허물어지면 경산 전역의 발전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되고, 대구와 연계한 도시계획으로 경산은 더 이상 대구의 근교가 아닌 중심으로 도약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지하철 2호선 개통에는 8년 10개월이 걸렸지만,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성구 사월역에서 경산 영남대역까지 3개역 3.3km 연장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강조하며, “지금의 행정체계로는 4차 산업혁명, AI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 행정통합을 통해 다시한번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또한 “쇠퇴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의 대구경북이 절박한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의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510만 시도민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며, “510만 시도민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17일 경주, 24일 구미, 31일 울진 順으로 도지사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경산시 간담회 계획(안)

- ◆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이 완성됨에 따라 행정통합 시군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 새바람 행복 버스 투어와 연계

■ 행사개요

- 일 시 : 2021. 3. 10.(수) 17:00 ~ 18:00
- 장 소 : 시청 대회의실(본관 2층)
- 참석인원 : 32명
 - (道) 도지사, 도의원 3
 - (市) 시장, 시의원 5, 지역 사회단체장 등
- 주요내용 : 행정통합 기본계획 설명, 질의응답 등

■ 시간계획(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7:00 ~ 17:05	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 정책협력팀장
17:05 ~ 17:15	10'	▶ 인사말씀(지사님, 시장)	
17:15 ~ 17:35	20'	▶ 행정통합 기본계획 설명(정책기획관)	
17:35 ~ 17:55	20'	▶ 질의응답	주재 : 지사님
17:55 ~ 18:00	5'	▶ 기념촬영	
18:00		▶ 폐 회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20. 3. 10(수)】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외교통상과			
		작 성 자	과 장	이 응 원		
			사무관	한영옥	담당자	임홍식
		연 락 처	054-880-2733			

이철우 도지사, 수출기업과 영상으로 만남 가져...

-수출기업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수출 400억 달러 달성 결의 다져-
-경제진흥원,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 시책설명회 개최-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10일 도청 화백당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경북지역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경지원단 및 구미분소, 경제진흥원, 한국무역협회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수출기업협회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200여 수출기업체 대표들과 ‘수출기업기(氣)살리기 영상회의 및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이철우 지사는 수출기업인들과 만남에서 “지난 한해 힘든 수출현장에서 전력을 다해 달려 오신 대표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에서도 여러분의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여 최고의 수출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음을 알고 기업현장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달려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영상회의에 참가한 기업체 대표들은 “늘 기업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앞장서서 해결해 나아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수출과 관련된 불편사항과 애로사항들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이화SRC의 손종규 대표 등은 “물류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출애로, 정책자금의 상환과 해외출장 조치완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이 지사는 “국제특송, 수출마케팅 사업 중 지원가능한 사업과 예산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정책자금 1년 상환유예 및 해외출장 완화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

다” 고 언급하였다.

이어 수출지원기관별 시책설명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수출기반조성, 해외시장마케팅, 수출경쟁력강화사업 등 30여 가지의 경북도 및 수출유관기관의 2021 수출종합시책을 홍보하고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경북경제진흥원은 해외전시회(10회), 화상수출상담회(4회), 수출일자리플러스원, 수출기업 통상경쟁력강화사업, 글로벌온라인몰입점, 수출기업 통번역사업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는 온라인무역사절단(16회),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온라인수출상담회(2회), 글로벌수출컨설팅사업,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을 홍보하였다.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해외전시회(8회), 중소기업 무역실무교육, 화상수출상담회(2회), 신남방북방시장진출사업을 진행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구경북지원단과 구미분소는 해외온라인몰입점, 해외지사화 및 공동물류, 해외시장조사, 해외마케팅 패키지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북통상(주), 경북우정청, 경북바이오연구원 등과 다양한 수출마케팅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변화무쌍한 통상환경의 최전방에서 수고하시는 수출기업들의 노력과 땀방울을 통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하고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도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돕겠다” 고 밝혔다.

<사진별첨>

수출기업 氣살리기 영상회의 및 지원시책 설명회

-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격려하고 수출의지를 북돋우며
경북도 수출증대 유도 및 경북도와 수출지원 유관기관 신규 수출지원시책 소개

행사개요

- 일 시 : 2021. 3. 10(수) 10:30 ~ 12:00
- 장 소 : 도청 화백당(4F)
- 참석인원 : 10명(※ 영상회의 참석 200명 정도)
 - 도지사, 경제부지사, 일자리경제실장 등
 - 경제진흥원장, 한국무역협회·중진공본부장, KOTRA 단장
 - 경북수출기업협회장(배영일)
 - (영상회의 참석) 도내 수출기업 대표 등 200명
- 주요내용
 - [1부] 수출기업인과의 만남(영상회의)
 - [2부] 온라인 수출지원 시책설명회(중진공 등 5개 기관)

일 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부 수출기업인 과의 만남	10:30~10:35	5'	행사안내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0:36~10:40	5'	격려사	도지사
	10:41~10:45	5'	환영사	수출기업협회장
	10:46~11:00	15'	수출기업인과의 대화(건의/애로사항 청취)	도지사
2부 시 책 설명회	11:00~11:07	7'	경상북도 수출지원시책 안내	외교통상과장
	11:08~11:35	28'	유관기관 수출지원시책 안내 (경제진흥원, 중진공, 무역협회, KOTRA)	팀장(4명)
	11:36~12:00	25'	질의응답 및 마무리	외교통상과장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3. 10(수)】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작성 자	과 장	정 진 환		
			사무관	박세진	주무관	전진영
		연 락 처	054-880-2826			

경북도, ‘새바람 행복버스 경산시 현장 간담회’ 개최

- ‘외식업, 휴게음식업 氣 확실히 살리자’ 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 열어 -
- 이철우 도지사, 새바람 행복버스 타고 외식업, 휴게음식업 민생현장 방문 -

경상북도는 10일 경산시 동부동행정복지센터에서 두 번째 ‘새바람 행복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새바람 행복버스 현장 간담회’는 도지사와 간부 공무원, 전문가들이 함께 버스를 타고 민생현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해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경산시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이철우 도지사, 최영조 경산시장, 지역 도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와 외식업회 회원, 식당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식업, 휴게음식업 氣 확실히 살리자”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간담회 중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주재하여 진행된 ‘민생 애로사항 질의 및 답변의 시간’에는 코로나로 인한 외식업, 휴게음식업의 매출 감소와 영업 손실, 골목경제와 지역상권 침체 등 민생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 건의가 이어졌고 도와 경산시, 관련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격의 없이 소통하며 문제를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갔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는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해제 건의에 대해 중앙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조정 시 도내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외식업계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营业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비말

차단 칸막이, 손소독제, 개인별 덜어먹기를 실천할 수 있는 안심접시·덜수저 등 방역 관련 물품을 도 차원에서 확대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현장 간담회에서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의 존재 이유는 도민인 만큼 생존절벽에 서 있는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서 도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든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아이디어 없이는 뒤쳐질 수밖에 없는 만큼 도정시스템을 연구중심으로 재편하여 대학, 기업, 연구기관, 시군 등과 원팀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라며, “철저한 준비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면 경북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경산시 삼성현로에 위치한 외식업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와 함께 경북안심식당 범도민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날 방문한 외식업소는 경북 안심식당인 ‘목정’ 과 우리가게 셀프 클린 UP 참여 업소인 카페 ‘마고플레인’ 으로 전자발열체크 출입시스템 및 스마트폰 기능에 서툰 노약자를 위한 080 안심콜 출입시스템, 안심접시·집게, 좌석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이용객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매출 증대 효과까지 거두고 있는 지역의 모범 업소이다.

한편, 새바람 행복버스 경산시 현장 간담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 한 것은 물론 참석자 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투명 칸막이 설치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개최되었다.

<행사후 사진별첨>

- 경북형 민생 氣 살리기 -

새바람 행복버스 경산시 현장 간담회 계획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도지사가 직접 『새바람 행복버스』를 타고 민생현장 곳곳을 방문, 도민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 주는 밀착형 민생투어 실시

1 행사 개요

- 일 시 : 2021. 3. 10.(수) 15:00 ~ 16:30
- 장 소 : 경산 동부동행정복지센터, 외식업·휴게음식업 민생현장
- 참석대상 : 30여명
 - (道) 도지사, 도의원, 전문가, 도단위 사회단체장, 道실국장 등
 - (시·군) 경산시장, 시의장, 지역 사회단체장 등
- 주요내용 : 민생현장 간담회, 외식업·휴게음식업 현장방문 등

2 시간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3:20~15:00	100'	이동(도청 → 경산 동부동행정복지센터)	※ 경산시 백자로 46
15:00~16:00	60'	① 「새바람 행복버스」 경산시 현장 간담회 - 경북형 민생 기살리기 대책 설명(10')-道정책기획관 - 민생 애로사항 질의 및 답변(50')	【동부동행정복지센터】 - 도지사, 경산시장, 시의장, 도의원, 외식업협회, 휴게음식업협회 등 30여명
16:00~16:05	5'	이동(동부동행정복지센터 → 민생현장)	- 새바람 행복버스로 이동
16:05~16:30	25'	② 민생현장 방문 및 격려 - 안심식당 모범업소(목정, 한식당) 방문 - 셀프클린업 모범업소(마고플레이н, 카페) 방문 등	【외식업, 카페 모범업소】 - 도지사, 경산시장, 도의원 등 ※ 경산시 삼성현로 585
16:30~16:40	10'	이동(민생현장 → 경산시청)	※ 대구경북 행정통합 간담회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21. 3. 10(수)】	담당부서	식품의약과			
		작 성 자	과 장	김창순		
			사무관	구자숙	주무관	김용찬
		연 락 처	054-880-3833			

코로나19 걱정 덜어주는, 경북안심식당 확대 추진

- 국비 3억 9천만원 확보 및 연말까지 4,602개소 지정계획 -

경상북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감염병 걱정을 덜어주는 ‘2021년 경북안심식당 지정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 3,201개소 지정에 이어 올해는 국비 3억 9천만 원을 확보하여 총 4,602개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심식당은 ❶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❷위생적인 수저 관리 ❸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식사문화 개선수칙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는 식당이며, 도는 코로나19 예방에 중요한 업소별 ❹매일 2회 이상 소독하기를 지정요건에 추가하여 4대 실천과제 이행업소에 안심식당 스티커를 부착한다.

올해 경상북도는 국가전체 안심식당 사업비 34억 원 중 23%인 7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안심식당을 신청 희망하는 음식점에 덜어먹는 용기, 개별 수저 포장지 등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6억 4천만 원의 자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작년 방역수칙을 실천한 안심식당 지정업소 3,201개소에 비말차단 칸막이,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안심식당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지정된 업소를 확인하거나, 검색포털 네이버, 다음이나 지도 앱인 T맵, 카카오맵에서도 지역명+안심식당으로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이철우 도지사는 10일 경산시 ‘새바람 행복버스 민생현장’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지회장 이재석)와 함께 경북안심식당 범도민 캠페인에 참여하여 안심식당 동참을 적극 홍보하였고, 음식점 영업자의 빠른 경제적 회복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적극 활용하여 영업장 시설개선 등 융자지원 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안심식당은 코로나 이후 영업 매출상승 및 감염병 걱정 덜어주는 필수 음식점 인증제도가 될 것이라며. 도에서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민생 氣살리기에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행사 후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21. 3. 10(수)】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작 성 자	과 장	김종태		
			팀 장	류시갑	주무관	장은혜
		연 락 처	054-880-7639			

경북도·영덕군,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 총력

- 수전해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검사 기반 구축의 최적지 -
- 그린수소 생산, 연료전지 인증센터, 기업 기술지원 통한 수소생태계 구축 -

경상북도는 10일 이희진 영덕군수와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모가 진행 중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영덕군 신재생에너지 혁신단지 내에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영덕군과 함께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수소 용품에 대한 평가와 인증업무를 수행하며, 새로 제정된 수소법(’20.2월)에 따라 수소 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가 법적 의무화된 만큼 수소 용품의 법적 검사와 수소 산업 안전분야를 책임지는 국내 최고의 핵심기관이다.

지난달 2월 24일 마감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의 공모에 영덕군을 비롯한 11개의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했고 1차 평가 결과 상위 5개의 지자체를 선정, 현장실사와 대면평가를 최종 입지를 확정한다.

영덕군이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총사업비 483억 원으로 건축물 3개동 1만평 규모에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등 시험설비와 수소·연료전지 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안전시스템 등을 구축하게 된다.

영덕군은 작년 8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1조 312억원)로 지정되었으며, 영덕을 중심으로 풍력리파워링단지, 신재생에너지산업혁신단지 등 산업융합거점지구를 조성하고,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TP 등 연

구 인프라가 풍부한 포항지역을 연구교육연계지구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영덕은 풍력 리파워링(3,000억원)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그린수전해가 가능한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경북도가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사업(220억원)과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신청한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1,062억원)구축 사업과 연계 시, 연료전지 제품을 포함한 국내 수소용품 전반의 평가와 인증기반을 통해 대한민국 탄소중립, 수소산업 벨트가 구축되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 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 시 향후 수소안전기술원 이전도 같이 추진되는 만큼 상주 인력도 120명에 달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며, 센터 인근에 자연스럽게 관련 수소 기업이 유입되므로 신재생에너지 혁신단지 내 제조업과 더불어 수소관련 기업 집적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의 유치는 우리 도가 최근 선포한 동해안 그린경제(Green Economy) 대전환(E.A.S.T 플랜)의 일환”이라며, “기관의 유치가 지역의 인구 유입과 수소기업 활성화에 직결되는 만큼, 센터가 반드시 영덕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3. 10(수)】	담당부서	투자유치실			
		작성 자	실 장	황중하		
			사무관	금원섭	주무관	윤희락
		연락처	054-880-4628			

기업애로 사항, 비대면으로 소통하며 해결해요

- 2021년 해피모니터 기업 영상회의 개최 -
- 지방투자보조금 등 지원시책 공유 및 기업 현장의 소리 공감 -

경상북도는 10일 도청 상상마루에서 하대성 경제부지사, 황중하 투자유치실장, 구미시 소재 해피모니터기업(10개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해피모니터 기업 비대면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해피모니터 제도는 경상북도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및 50만불 이상 투자한 외국인 기업의 임원 210명(국내기업 176, 외투기업 34)을 해피모니터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주요경영 이슈논의 등을 통해 기업의 증액투자를 유도하고 상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해 기업 해피모니터는 도·시군 공무원들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직원용 마스크 지원, 공단 도로 내 낙석방지망설치 및 주차장, 가로수 정비 등 317건(제도개선과제 발굴 6건, 행정처리 218건, 자체처리 93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하였다.

또한, 해피모니터운영으로 접수된 김천 1차 산업단지내 주변 가로등 보수 및 노후진입로 보수, 구미 국가산업단지내 노후도로 차선도색 및 배수로 파손부 정비, 성주 문방공단내 공업용수 관로보수공사 등 총 227백만원(도비 68, 시군비159)의 투자유치기업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영상회의는 △2021년 경북도 투자유치 방향 및 추진전략 소개 △기업투자 시 지원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및 국내복귀지원제

도 등 정부지원정책 안내 △ 중소기업운영자금지원방안 △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품질 및 공정개선 지원사업 등 안내 △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상북도는 2020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 33,055백만원(국비24,382, 지방비 8,673)을 지원하여, 2008년 사업시행 이후 최고금액을 지원했고, 국내복귀유턴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산업부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One-Stop 행정서비스 체계 유지, 지원혜택 확대를 위해 종전 해외법인 청산·양도 외에도 사업장 생산량을 25%로 축소할 시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등 강화된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내용도 전했다.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코로나 19로 국내외 경기가 매우 어려워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나, 이럴 때 일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들을 강구해야 하고, 공무원들은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의 소리를 직접 발로 뛰고 찾아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행사후 사진별첨>

2021년 해피모니터 기업 영상회의 개최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3. 10(수) 15:00
- 장 소 : 상상마루 영상회의
- 회의방법 : 온라인 PC영상회의(접속방법 붙임 참조)
- 참석대상 : 道 경제부지사, 투자유치실장, 구미시 기업지원과장, 기업체
 - 해피모니터 기업(10개사)
- 주요내용
 - 2021년도 지원 정책 설명
 - 기업 애로사항 의견 청취 및 토의 등

시간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5'	▶ 인사말씀	경제부지사
15:05~15:15	10'	▶ '21년도 지원 정책 설명 등	유치지원팀장
15:15~15:45	'30	▶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기업체별
15:45~16:20	'35	▶ 토론	
16:20~16:30	'10	▶ 마무리 말씀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21. 3. 10(수)】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			
		작 성 자	과 장	송 호 준		
			사무관	권태남	주무관	장호선
		연 락 처	054-880-3203			

경북도, 지방자치단체 최초... 국내 태교여행 홍보

- 2021 부산베이비페어에서 ‘아가랑 함께하는 첫 경북여행’ 홍보 -

경상북도는 3월 11일 ~ 14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1 부산베이비페어’에 경상북도 관광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임신·육아 관련 박람회에 지역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참가하는 경북도는 ‘아가랑 함께하는 첫 경북여행’이라는 주제로 테마가 있는 경북 태교여행을 중점 홍보한다.

특히, 에코힐링·문화유산·감성·웰빙이라는 4가지 테마로 성주 세종대왕자태실 등 태교와 어울리는 관광지 36개소를 리플릿으로 제작해 이번 베이비페어를 통해 배포하고 e-book 형태로 ‘경북나드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대면 접촉을 줄이면서 즐길 수 있는 ‘언택트 경북여행 23선’, ‘차박여행’ 등도 함께 홍보하고 ‘침성대 팬던트 마스크줄 만들기’, 다산과 순산을 기원하는 ‘대추받기게임’ 등 홍보관을 찾은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한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기존 해외로 편중되어 있던 태교여행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로 전환됨에 따라 태교여행에 맞는 경북의 다양한 관광지를 소개하고 태교여행 외에도 반려동물, 낚시, 차박 등 목적형 테마관광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별첨>

<참고자료>

1. 에코힐링 태교여행

- ①국립김천치유의숲 ②국립칠곡숲체원 ③금오산올레길 ④호미반도둘레길 ⑤경천대관광지 ⑥사촌가로숲 ⑦국립산림치유원 ⑧고래불해변 ⑨울진 소광리 금강송군락지

2. 문화유산 태교여행


- ①성주 세종대왕자태실 ②양동마을 송첨종택 ③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④돌할매 ⑤무섬마을 ⑥사우당종택 ⑦만휴정 ⑧금당실전통마을 ⑨한밤마을과 남천고택

3. 감성 태교여행

- ①조문국사적지 작약꽃 ②국제밤하늘보호공원 ③반곡지 복사꽃 ④보문정 ⑤한옥카페 화수헌 ⑥비밀의 화원 ⑦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⑧죽변드라마세트장과 하트해변 ⑨창평지친환경생태공원

4. 웰빙 태교여행

- ①문경도자기박물관 도자기체험장 ②청도 천연염색공당 ‘꼭두서니’ ③경산 하늘호수팔공산점 ④칠곡 꿀벌나라테마공원 ⑤상주 목재문화체험장 ⑥봉화 목재문화체험장 ⑦영천 한의마을 ⑧고령 대가야다례원 ⑨청송 덕천마을 청원당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3. 10(수)】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작성 자	과 장	김 동 희		
			팀 장	이황임	담당자	한 식
		연 락 처	054-880-2334			

경북도,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공모선정... 12억원 확보

-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공모 최종 선정 -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 사업비 12억원(국비 6억원, 지방비 6억원)을 확보하였다.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역 내 노후·위험시설에 대해 센서를 활용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진화 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과거 2017년 11월 발생했던 지진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관내 60여개소의 교량, 건축물, 절토면, 수문 등 노후·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센서 및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을 금번 공모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지역 내 대학의 안전학과와 연계하여 안전문화를 강화하고, 자료를 상호 공유하여 안전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예정이다.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24시간 실시간으로 대상시설에 대해 위험상황 발생 여부를 관측하여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가능하며, 또한 장기적으로 시설 노후화 정도를 관측하여 적기에 보수·보강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선진화 된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게 된다.

김중권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과거 지진 발생 등 재난으로 인해 도민들의 불안감이 증대 되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며,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선진화 된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만들고, 도민들의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해소 하겠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21. 3. 10(수)】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중소기업과			
		과 장	이 강 학			
	작성 자	팀 장	조장춘	주무관	유승희	
		연 락 처	054-880-2672			

경북도, 중소기업 유통채널 입점을 위해 직접 댐다.

-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품평회를 연 4회 개최 -

경상북도에서는 비대면 소비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지역의 중소기업 중 소비자 판매제품(B2C)에 대해 유명한 온라인 유통채널에 입점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는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권역별 품평회를 개최한다.

우선 3월 18일, 경주에서 동부권 품평회를 개최하여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진소재 중소기업의 수산물, 농산물, 공산품을 국내 최대 온라인 유통채널 쿠팡의 로켓배송, 로켓프레시 입점 기회를 제공한다.

품평회 참여대상은 지난 2. 4일 ~ 3. 12일 까지 공고기간에 참여 신청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이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쿠팡 로켓배송, 로켓프레시에 입점하기를 희망하지만, 입점 기회가 여의치 않았으나, 이번에 경북도가 직접 쿠팡과 연결하여 쿠팡의 MD가 직접 상품을 평가 후 입점 여부를 당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입점을 신청한 업체는 30여개사이다.

품평회는 1차 제출서류에 의한 적합평가와 현장에서 MD 평가로 제품구성, 가격, 품질관리력, 재고 확보량, 트렌드 등을 심사하여 70점 이상을 얻은 업체를 우선 선정하게 된다.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 동부권을 시작으로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으로 확대하여 총 4회 정도 품평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품평회를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많이 입점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도가

확보한 온라인 유통채널은 쿠팡, 위메프, 티몬, 공영쇼핑, 우체국쇼핑, SSG, 롯데ON, 마켓컬리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대한 많은 우리지역 중소기업제품이 입점하여 매출 확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민생살리기 차원에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이 온라인 유통채널에 입점하도록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입점교육, 제품디자인 개선 등에 전폭적인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돕겠다” 고 하였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3. 10(수)】	담당부서	동해안전락산업국 동해안정책과			
		작성 자	과 장	이 원 철		
			사무관	정용규	주무관	김형준
		연 락 처	054-880-7627			

해양과학기술 기반 기업 지원사업... 첫걸음 내딛는다.

- 해양과학분야 사업화를 위한 기술성숙도 단계별 관리시스템 구축 -
-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사업비 최고 35백만원, 총 1.5억원 지원 -

경상북도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해양 소재, 에너지 및 ICT융합, 해양장비 등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자원 확보, 관리 및 산업화 등 전주기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해양과학기술 기반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과학기술 기반 기업 지원사업은 대상 기업이 보유한 기술성숙도(TRL)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여 △유망한 과학기술기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수요기반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항목 발굴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통한 기업 성장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 상용화 중심 보유 기술 평가 △향후 정부사업과 연계한 실증화 시설, 산업기반, 인력양성 등을 통한 산업기반 확대를 통해 환동해 지역 해양 자원을 활용한 미래 유망한 해양과학분야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의 육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해양과학기술 기반 기업 지원사업은 경상북도가 (재)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해양소재, 에너지, ICT융합 등 해양과학기술을 보유한 도내 중소벤처기업 등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선정된 기업은 기업당 최대 35백만원, 총 1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3월에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으로 *기술성숙도(TRL) 4단계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관

내로 본사·연구소 이전(예정)하는 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 기술성숙도(TRL) 1~3단계 : 기초연구 및 실험단계

4~9단계 :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 제품화 단계

주요 지원 프로그램은 기술고도화 및 제품상용화 지원으로 기술보완, 성능분석, 유효성 평가, 시작품 제작, 제품고급화,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한수 경상북도 동해안전락산업국장은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환동해의 우수한 해양자원 여건에 비해 열악한 해양과학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관내 기업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양질의 관외 기업의 지역 유치를 도모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해양과학기술 기반 기업 지원사업 계획

필요성

- 환동해 지역 해양 자원을 활용한 과학기술 기반 미래유망 해양 과학분야 선점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필요
- 해양자원 확보, 관리 및 산업화 등 전주기적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01 ~ 2021.12(12개월)
- 총사업비 : 150백만원(도비)
- 지원대상 : 과학기술 기반 해양 소재, 에너지 및 ICT융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 예정기업
- 사업량 : 4개소
- 사업내용 : 해양과학분야 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
 - 지원분야 : 기업 보유 기술성숙도(TRL)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성과창출 : 일자리 창출, 매출증가 및 제품상용화 등 평가

☞ **향후 기술고도화, 인력양성, 산업화 기반구축 등 정부사업 연계 추진**

구 분	주 요 사 항
유망기업 발굴	. 관내 과학기술기반 중소벤처기업 DB 구축/활용 . 관외 유망 중소벤처기업(3대 기술분야) DB 구축/활용 . 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항목 발굴 ☞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기업지원 및 관리 를 통해 관내 기업 역외 유출 방지 및 역외 기업 관내 유치(연구소 등) 강화 필요
기술평가	.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를 통한 기업 보유기술 평가 . 기술분야 및 보유기술 단계별 지원금액 및 지원기업 수 조정 ☞ 성장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 단순 연구개발이 아닌 상용화 중심 평가
성과관리/산업확대	. 성과관리 : 일자리 창출, 매출 증가, 제품 상용화 등 중점 관리 . 산업확대 : 실증화시설, 산업기반, 인력양성 등 정부사업 발굴 연계 ☞ 향후 유망 기업 지역유치 및 산업군 조성을 위한 산업기반 확대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21. 3. 10(수)】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동물방역과			
		작 성 자	과 장	김 규 섭		
			팀 장	이영미	주무관	이은미
		연 락 처	054-880-3446			

경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봄철 방역 강화대책 추진

- 봄철 이후 이동 및 번식으로 인한 개체수 증가 등 도내유입 위험 증가 -
- 양돈농가 방역시설 개선 및 야생멧돼지 개체수 저감으로 유입차단 -

경상북도는 봄철 야생멧돼지의 번식 및 활동증가 시기를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연접한 강원도 영월 야생멧돼지에서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다시 검출되고 있고, 봄철은 야생멧돼지 번식에 따른 개체수 증가와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감염개체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도 우려된다. *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 : 전국 1,184건(영월 10건)

이에 경북도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해, 양돈농가 사육돼지 방역시설 개선과 야생멧돼지 개체수 저감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사육하는 돼지에 대해서는 오염원이 농장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양돈 농가의 방역시설을 보완 및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 1,440백만원, 소독시설장비, 방역실 등 방역인프라 구축 2,240백만원 등 총 3,974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양돈농가에서는 3월말까지 울타리 설치를 완료하고, 특히 강원도와 연접한 영주와 봉화 등 북부 지역은 농장내 축산차량 진입제한 조치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히고, 4월말까지 중앙 및 지자체 전담관이 합동으로 울타리 등 방역시설에 대한 점검을 집중 실시하므로, 미흡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였다.

다음으로, 야생멧돼지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4.30일까지 2개월간 일제포획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22개 시군에 632명의 수확기 피해방지단과 포획틀 289개소를 24시간 운영하여 개체수 저감을 추진한다.

또한, 폐사체 발견시 전 개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주변 서식지 소독강화 및 환경검사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를 방지한다.

아울러, 도에서는 쥐 등 매개체에 의한 질병유입을 막기 위해 구서제 1.8톤(62백만원)을 축산농가에 배포하는 한편, 모든 출하 전두수 정밀검사, 축산시설 환경검사, 외국인 근로자 방역수칙 홍보·교육 및 일제소독의 날 운영 등 방역대책도 시행 중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위험이 커지는 시기이다. 내 농장 주변에 위험요인이나 취약한 시설이 없는 지 점검·보완하고, 농장 소독강화, 사람 및 차량통제 등 차단방역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